

시스템 개발과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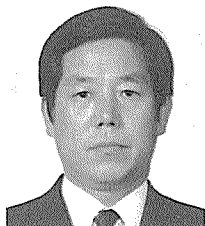
보통 業務電算化는 시스템開發 計劃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開發하고 開發完了된 시스템은 運用에 들어가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社會가 高度化되고 各 企業마다 業務가 多機能化 되면서 한번 開發完了된 시스템을 그대로 運用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電算化段階를 보면 業務調查 및 分析, 시스템基本設計, 시스템 詳細設計, 프로그램作成, 테스트 등의 段階를 거치는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多小 差異는 있지만 業務分析段階나 시스템설계단계가 5~6個月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設計가 어느정도 마무리 段階에 들어가면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으로 基準이 바뀐다든지 처리FLOW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모든 바뀐 基準이나 處理方式을 詳細設計時에나 프로그램 코딩단계에서 전부 수정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시스템의 최종 稼動日을 미리 定해 놓고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開發日程에 쫓겨서 미처 修正을 다 하지 못하고 본래 設計대로 開發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게되면 시스템開發一程중은 마칠 수 있으나 開發完了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Maintenance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各 企業마다 電算要員들이 몇 십명씩 있으면서

정갑석
동부제강(주)



新規 開發業務보다 이미 개발되어 通用되고 있는 業務의 Maintenance에 더 많은 工務를 뺏기게 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한번 개발되면 영원히 그대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준이 바뀌고 Level-up 사항이 나타나게 되므로 시스템開發과 運用은 항상 밀접하게 相互補完的으로 管理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各 企業마다 電算化를 시작하면 영원히 電算要員이 存在하고 점점 늘어나게 되는 原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